논어 10편 향당 3장 · 원문·풀이

君召使擯，色勃如也，足躩如也。揖所與立，左右手，衣前後，襜如也。趨進，翼如也。賓退，必復命，曰：「賓不顧矣。」

독음 · 군소사빈 색발여야 족곽여야 읍소여립 좌우수 의전후 첨여야 추진 익여야 빈퇴 필복명 왈 빈불고의

쉬운 풀이(요약) · 손님 접대를 맡으면 표정과 걸음을 삼가고 좌우 사람에게 예를 갖췄다. 손님이 떠나면 반드시 임금에게 일을 마쳤다고 보고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君 임금 군 / 召 부를 소 소 / 使 하여금 사 사 / 擯 물리칠 빈 빈

色 빛 색 색 / 勃 갑작스러울 발 발 / 如 같을 여 여 / 也 어조사 야

足 발 족 족 / 躩 공경할 곽 / 揖 읍할 읍 읍 / 所 바 소 소

與 너울너울할 여 여 / 立 설 립 립 / 左 왼 좌 좌 / 右 오른쪽 우 우

手 손 수 수 / 衣 옷 의 의 / 前 앞 전 전 / 後 뒤 후 후

襜 행주치마 첨 첨 / 趨 달아날 추 추 / 進 나아갈 진 진 / 翼 날개 익 익

賓 손 빈 빈 / 退 물러갈 퇴 퇴 / 必 반드시 필 필 / 復 돌아올 복 복

命 목숨 명 명 / 曰 가로 왈 / 不 아닐 불 / 顧 돌아볼 고 고

矣 어조사 의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